

즐기차게 이어지는 강군의 역사와 전통

공화국의 자위적무장력은 대를 이어 위대한 령장들을 모시어 강군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

군대가 강하여 국가가 강하고 인민이 존엄높은 것이다.

총대로 반제대결전에서 승리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여 강군의 첫 페이지를 쓴 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다.

민족의 운명이 외세의 총칼에 의하여 지리멸렬되어가던 수난의 세월 자주독립의 기치밑에 항일대전을 선포한 조선인민혁명군은 발발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여 민족재생의 영광을 안아왔다. 자주적운명개척의 새 역사를 창조하였고 통성변영으로 가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첫 걸음은 1932년 4월의 봄날에 시작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길림감옥에서 출옥하신 후 순정도목사의 집을 찾으셨을 때였다.

목사는 그의 신상을 념려하며 일제의 민주침공이 시간문제라 되고있는것 같은데 장차 어떻게 할 작정인가

고 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야 다른 길이 있는가고, 군대를 크게 조직해가지고 일제놈들과 결판을 내자고 한다고 옥중에서 굳히신 자신의 결심을 내비치셨다.

그이의 대답을 들은 목사는 대뜸 놀라와하며 총으로 일본과 맞서보겠다는건가고 되물었다.

그이께서는 그렇다고, 그 결박에야 다른 출로가 없지 않는가고 결연히 대답하시었다.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시며 무장투쟁, 유격전을 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명령구회의에서 이렇게 확언하시었다.

우리는 국권도 령토도 자원도 다 빼앗긴 땅국도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나섰다.

하더면 그이께서는 무엇을 믿고 항일전쟁을 결심하시었던것인가.

인민을 굳게 믿으셨다.

인민을 국가로, 인민을 후방으로, 인민을 정규군으로 보시고 싸움이 일어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것이

라는데 믿으시고 무장투쟁을 결심하시었다. 유격전을 인민전쟁으로 보셨다.

력대로 남들이 유격전을 정규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보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것을 기본적인 투쟁형식으로 확정하신것은 당시의 구체적현실에 부합되는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결단이였다.

사물문제, 무기문제, 교련문제, 식량문제 등 많은 난문제를 해결하시며 혈전의 준비를 갖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침내 안도현 소사라의 토기점골동판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선포하시었다.

일제의 멸망을 선고하고 민족의 피타는 가슴에 재생의 희망을 안겨준 1932년의 봄은 항일대전의 총성속에 무르익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대전의 나날 비행기와 땅과 같은 현대적무장장비를 갖춘 일제의 100만대군을 위락시켜주시며 섬멸적타격을 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에 유격구방어작전을 창조하시였는데 그것

은 당시까지의 유격전의 역사에 없는 독창적인 작전이였다.

두차례에 걸치는 북만민정과 여러차례의 국내전공작전들, 고난의 행군, 대부대선회작전과 소부대활동들 비롯한 모든 작전들과 동녕현성전투, 로혹산전투, 무송현성전투, 보천보전투, 감삼보전투, 무산지구전투, 서강전투, 홍기하전투, 대사하치기전투 등 대소전투들에서 천변만화하는 유격전법들을 활용하시어 일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시었다.

유인대복전법, 기습소탕전, 동성서격전법, 이정화령, 이동화정전술, 일행전리전술, 망원전술, 신회전술 등 인민혁명군의 령활무생한 전법들에 의하여 일제의 《참비전술》, 《명공장추전술》, 《요점배치전술》, 《포위소탕전》과 같은 《로벌》작전들이 무용지물로 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 령도하신 항일대전은 정신력에 있어서나 전략전술에 있어서 군대를 불패의 강군으로 건설하고 유격전으로 강대한 정규군을 타승한 혁명전쟁으로 세계전쟁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렇게 탄생도 사변적이고 공훈도 역사적이다.

나라를 해방하였다고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공복을 벗은것은 아니였다. 새 조국건설은 군대의 더 큰 역할을 요구하였다.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체없이 정규무력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룡, 해, 공군을 다 갖춘 조선인민군이 창건된것이였다.

강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또 하나의 전

승신화를 창조하고 강군의 위용을 떨치였다.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으며 장기간의 반제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절실한 평화적환경은 그 누구도 법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 힘에 의하여서만 담보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어 위대한 강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더욱 강화발전된 공화국의 자위적무장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령솔하에 무진막강한 위력을 높이 떨치며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있다.

조국수호의 최전방소대와 전투훈련장들, 첨단무기시험발사장들을 비롯한 화선길을 걷고걸으시며 굳건강화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본직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남들이 수싯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한 군사적기적들이 짧은 기간에 다발적으로, 림속적으로 일어나 공화국의 군력은 백방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다.

세월은 많이 흘렀어도 제국주의의 침략본성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으며 힘이 약하면 망국노가 되고 민족이 온갖 불행과 재난을 면할수 없다.

강한 군력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있고 평화도 있으며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도 있다.

위대한 령장을 모신 강군을 가진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인민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

인민군대가 있어 이처럼 혹독하고 위협천만한 격난을 뚫고 공화국은 승리의 한길로만 즐기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주의침략군대와 대결전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정승신화를 창조할수 있는것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가중되는 적대세력들의 침략위협속에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수호비결의 하나도 바로 강위력한 군대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적대세력들의 복침전쟁책동은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는 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고 전쟁위협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때마다 강력한 자위의 군력이 있어 적대세력들의 침략기도는 추호도 변하지 않았으며 힘이 약하면 망국노가 되고 민족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게 되었다.

인민군대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법집 못하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장성강화된것은 대를 이어 위대한 령장을 모신 강군을 가진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국가발전의 전도를 깊이 통찰하시어 기초하여 건군을 새 조국건설의 주요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었다.

자위의 군사로선을 제시하시고 전군에 일당백의 기상이나래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인민군대는 적대세력들의 모험적인 도발책동을 결음마다 짓부시며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불패의 전투대로로 장성강화되었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조국보위의 제일선에서 영웅적인 결사전을 벌리며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

불면불휴의 선군장정으로 인민군대의 부대들과 초소들, 국방공업기지들을 찾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하여 공화국은 포악무한한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을 결음마다 단호히 분쇄하고 강도와 인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이 판무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유린당하는 오늘이 현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자위적전쟁역력을 억척으로 다져놓으신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던것인가를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오늘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최정에강군으로 더욱 위용떨치며 반제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우고 있다.

인민군대가 일당백의 용맹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그 위력이 더욱 백배해지게 된것은 출중한 군사적예지와 비범한 지략, 천변만화하는 전략전술과 주제전법

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솔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예로부터 백성이 군대를 먹여살리는데는 국가사회생활의 법적처벌 되어왔다. 그러나 공화국의 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자기 행로우에 빛나는 자욱을 새겨왔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아!》는 구호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무하는 인민군대의 홀몸한 번모가 그대로 어러였다. 불타던 전초기에 뿌리내린 아름다운 거목들과 저더미를 가지고 솟아난 비날론생산기지를 비롯한 창조물들, 대규모의 갑문과 사회주의담장제 변모된 공화국의 협동전야놀이는 창조와 건설에서도 위력을 떨치는 인민군장병들이 흘린 고귀한 땀방울들이 스며여왔다.

오늘 인민의 웃음 넘쳐나는 마식령스키장, 미림습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려명거리, 양덕온천물장유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 삼지연시를 비롯한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창조물들아마에도 인민군인들의 애국의 땀과 노력이 깃들지 않은것이 없다. 지금 인민을 위해 수도의 한복판에 선진적인 종합병원을 일떠세우는 거창한 창조대전에서 혁신의 구슬땀들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도 군인건설자들이다.

진정 공화국에서 군대의 역사는 위대한 령장의 탁월한 손길아래 인민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로 자랑떨쳐온 승리와 위훈창조의 역사이다.

지난날에도 그러했듯이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용맹과 위훈을 높이 떨쳐갈것이다.

김춘원



불패의 강군을 이끄시는 나날에

우리 식의 전법

언제인가 조선인민군 해군 종합군사연습이 있었을 때였다.

연습을 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걸은 로정을 돌이켜보시면서 우리의 혁명무력, 우리 군대가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면서 싸워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식의 전법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식의 전법이란 우리 군대의 정치사

상은 독특한 조선식전법이며 모든 최신과학원리와 전성수단들을 최대한으로 동원이용하는 현대적인 전법이고 항일전쟁과 조국해방전쟁경험을 총화하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백전백승의 전법이라고 하시었다.

훈련으로 새날을 맞고 지는해를 보내야 한다시며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훈련열풍을 일으켜

리는 독특한 조선식전법이며 모든 최신과학원리와 전성수단들을 최대한으로 동원이용하는 현대적인 전법이고 항일전쟁과 조국해방전쟁경험을 총화하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킨 백전백승의 전법이라고 하시었다.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었다.

주제106(2017)년 4월 어느 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

밑에 인민군인들들의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계대회가 진행되었다.

경계대회를 지도하시며 군인들이 발휘한 전투적위력을 높이 치하하시어 원수님께서서는 잘 훈련된 병사만이 싸움마당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울수 있으며 결전의 하루를 위해 훈련의 백날, 천날을 땅과 함께 이어가는 군인이 참된 애국자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은 항상 전쟁의 나날에 마음을 얹어두고 훈련으로 새날을 맞고 지는해를 보내야 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수필 산골역에서 본 사적비

얼마전 출장길에서였다. 수림속을 헤가르며 달리던 열차는 어느 한 산골역을 가까이하고있었다.

《이곳에도 현지지도사적비가 있군요.》

내옆에 앉은 손님이 차창밖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였다.

차창밖에 눈을 던지니 정말 그 외진 산기슭에도 사적비가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곳이라는 글밭이 안겨왔다.

깊은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던 차칸안의 손님들이 이야기꽃을 놓았다.

《우리 농장에도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가 있지요.》

《수령님께서서는 자그마한 우리 식로공장에 찾아오셨답니다.》

《정말 두에산골이나 빌방과 어촌 그 어디에나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찾고찾으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러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결에 앉아있던 나는 그 말을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인민을 위한 헌신의 현생을 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지지도의 길은 끝이 없어 이 땅 어디에나 거룩한 그 자욱이 어러

여있지 않은 곳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찾고찾으신 현지지도단위수는 무려 2만 600여개, 그 날짜수는 8 650여일에 달하며 그 로정의 총연장거리는 57만 8 000여km(144만 5 000여리)나 된다.

정녕 이 나라의 방방곡곡 어디에나 어러있는 애민헌신의 전설같은 이야기를 길이 전하며 수많은 사적비들은 위인칭송의 기념비로 솟아 오늘도 빛을 뿌리고있는것이 아닌가.

동서고금에 없는 뜨거운 은정과 고매한 덕성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헌신의 길을 새겨볼수록 새해전 첫아침에 조국과 인민일에 엄숙한 맹약을 하신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어러여온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알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려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도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더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증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입니다.》

그이의 절절하신 음성을 들으며 인민들은 크나큰 흥분으로 가슴속이 울려다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걸고걸으신 사랑과 헌신의 길을 오늘도 또 한분의 인민사랑의 정취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끊이지 이어가시게는것이다.

몸소 타고다니시며 그 안전성을 확인하신 마식령스키장의 삭도에도, 건설중인 려명거리의 초고층 살림집을 찾으신 이날 몸소 오르시였던 시운전장터는 승강기에도 그의 인민사랑의 발자취가 어러여있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습마구락부,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유류자동병원, 평양야방야정,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물장유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 무수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마다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쳐있지 않는데가 없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역사는 즐기차게 흐르고있다.

김철



과학기술선당

과학 기술의 시대인 오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할상사키지 못한다면 그만큼 나라의 발전은 더디어지게 된다.

하기에 공화국에서는 교육사업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이 즐기차게 벌어지고있다.

많은 대학들에서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개발창조형의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게 교육내용에서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한덕수평양공업공립대학, 청진기의학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는 과장안하여 반영된 모든 학과목들의 교육내용을 실천능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였다.

김철주사범대학과 김철주사범대학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하고 보급할수 있게 교육내용에서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한덕수평양공업공립대학, 청진기의학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는 과장안하여 반영된 모든 학과목들의 교육내용을 실천능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였다.

김철주사범대학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하고 보급할수 있게 교육내용에서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수많은 학교들에서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즐기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일하

면서 배우는 원격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전민이 학습하는 열풍이 일고있다.

이처럼 교육사업에서의 부단한 발전과 혁신은 공화국을 하루빨리 교육의 나라로 일제강점으로 빛내이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제102(2013)년 6월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신

인재는 어떻게 늘어나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격강의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망에 망라되어 공부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원격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로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원격강의실에서 원격교육체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강의를 받는 정황과 강의리해정형, 시험용시정형을 비롯한 학습정형을 매 항목별로 장악하고 학생들의 학습정형을 순위를 갈라 소개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시고 교육관리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어주고 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우리는 교육을 현장에 접근시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

접촉하여야 한다고, 누구나 학습을 많이 하여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교육사업을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속에 공화국에서는 전반부12년제의 무교육이 실시되고있으며 중등교육을 비롯하여 전반적교육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다.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민물레학

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온 나라에 새 세계교육혁명의 물결이 더욱 거세게 타고르제 하고계 대들이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나라, 나라의 기둥강대로 믿음직하게 자라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교육사업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나라의 발전을 떠맡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다른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아무리 어러워도 후대교육사업은 한시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서 안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그이의 말씀을 잊지 못할수 있다.》

이것은 조선의 현실을 본 외국인사들이 한 말이다.

승고한 미레판을 지니시고 교육발전을 우선시하시는 인민의 지도자로서는 현명한 령도가 있어 새 세대들은 마음껏 배우며 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떠맡고나갈 유능한 인재로, 역군으로 성장하고있다.

리성심